

5/17/20

설교 제목: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시는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12 장 10-20 절

- (창 12: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 (창 12:11)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래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 (창 12:12)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 (창 12:13)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 (창 12:14)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 (창 12:15)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 (창 12:16)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 (창 12:17)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 (창 12:18)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 (창 12:19)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 (창 12:20)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아내 사래와 조카 롯 그리고 그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종들을 데리고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던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을 갑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을 가면서 '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얼마나 아름답고 비옥하고 풍요로울까!' 가슴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와서 보니 의외로 입지 조건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지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비해 이곳 가나안은 대부분이 사막 지대였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생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머릿 속에 여러 가지 상념이 떠올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그 땅에 기근한지 얼마되지 않아 기근이 들었습니다.

(창 12: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람의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라면 꽃길이어야지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가라고 하신 길은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가는 도중에 장애물이라도 생기면 그 길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길인가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가라고 인도하신 그 길은 세상적으로 택한 길보다 오히려 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광야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견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언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람이 기근 속에도 나일 강으로 인해 물 걱정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람은 기근을 피해 애굽에 거류할 것을 결정하면서 심사숙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셔서 온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곳에서 버티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번민하며 수많은 잠 못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기근이 들어 식솔들과 함께 살 도리를 찾아야 하는 가장의 입장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결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아브람은 나중에 다시 오더라도 당장 식솔들과 살고 보자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런 아브람의 결단은 너무나도 이해가 가는 상식적이고 현명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은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께는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기근이란 장애물이 아브람의 믿음의 눈을 막아 버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간사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까지 온 믿음의 사람 아브람이었던만 기근이라는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자 하나님의 언약은 뒷전이고 당장 살아야겠다는 생각만이 앞섰던 것입니다.

아브람의 눈 앞에 하나님의 존재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출렁이는 나일강 물결만이 아른거렸습니다.

이것이 어찌 아브람 뿐이 문제 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믿음과 불신이 함께 존재합니다.

모세가 이와같이 아브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바로 이어서 불신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인간 모두에게 아브람과 같이 믿음의 모습과 불신의 모습 양면이 함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합니다.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가까워지자 아브람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내 사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혹여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 사래를 취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창 12:11)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래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창 12:12)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창 12:13)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아내 사래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기로 전략을 짰습니다.

사실 이것이 순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사래는 실제로 아브람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아브람이 후에 아비멜렉에게 다음과 같이 털어 놓은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창 20: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창 20:10)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창 20:11)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창 20:12)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렇다손 쳐도 아브람이 아내 사래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기로 한 것은 아내 사래와의 혈연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것이므로 분명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걱정하던 일이 바로 생겼습니다.

애굽 바로 왕이 사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래를 아내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창 12:14)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창 12:15)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창 12:16)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 왕은 오라비라고 믿고 있는 아브람에게 신부를 위한 지참금까지 주고 정식으로 사래를 아내로 데려갔습니다.

죄는 점점 더 큰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아브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만약 바로 왕이 사래를 아내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압압한 인간과 달리 신실하게 당신이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가십니다.

(창 12:17)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창 12:18)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창 12:19)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창 12:20)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래를 아내로 맞이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굳이 이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자면 일차적인 잘못은 아브람에게 있습니다.

바로 왕은 사래를 강제로 빼앗아 온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오라비인 아브람에게 지참금까지 주고 아내로 데려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의 원인을 제공한 아브람이 아니라 잘못이 없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재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바로 왕이 사래에게 손도 못대고 곧바로 돌려 준 것으로 보아 엄청난 재앙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세상의 질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약속한 언약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람과의 언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인류 구속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래와의 사이에 자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사래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람이나 바로 왕의 행위에 상관없이 아브람과 사래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둘째, 아브람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아브람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였기에 애굽의 왕 바로의 세도는 하늘을 찌를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왕이 아브람에게 찢찢매니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저절로 알아서 기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아브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창대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아브람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기근이 들자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도 내동댕이 치고 먹고 살겠다고 물이 있는 애굽 땅에 내려온 권력도 재물도 힘도 없는 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택해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아브람을 통해 당신의 인류 구속사를 이루어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람을 특별히 택하셨는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받은 자가 세상에서 권력있는 자보다 창대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권력 재물 힘도 소용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세상에서 가장 창대한 자입니다.

세째, 아브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질서 곧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됩니다.

세상 말로 아브람을 신용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한 일에 대해 아무리 왈가왈부 하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편에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인류 구속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시고 혹독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걸을지라도 두려워 말 것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계획을 위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눈동자 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 43: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 43: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यो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담대하십시오!

믿음과 불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지 말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